

“친환경 포장 개발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김 충 일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지난 7월 20일(수) 제11대 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10대 김충일 부회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충일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충일 신임 회장에게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Q. 먼저 제11대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포장기술사분들이 많이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앞선 이한영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께서 포장기술사회를 위하여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셨다. 제가 그 회장직을 이어받아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졌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포장기술사회 및 포장산업 발전에 노력하려고 한다.

포장분야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 세분할 수 있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저 또한 우리나라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 중 한 명이고, 여기서 제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Q.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은 없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포장 제조업체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라는 기관으로 옮겨 31년간 검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다. 주로 종사한 분야는 수출위험물 안전검사, 위험물용기 검사와 교육업무 등을 하였다. 위험물은 운송 중 사고가 발생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포장과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포장과 물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2년도에 포장기술사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3년에는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을 한 경험도 갖고 있다.

Q. (사)한국포장기술사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포장기술사회는 1995년 설립되어 2000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단법인 정식인가를 받았고, 포장 분야의 국가 최고 자격인 포장기술사를 취득한 180여 분으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다.

그동안의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10대 우수포장 선정 제도를 도입하여 시상하였으며, 최근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포장기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친환경 포장 정부 용역 등을 통하여 포장분야의 신기술들을 발굴하는 등 대한민국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저희 포장기술사 회원들의 구성원은 석유화학 포장재원료, 플라스틱 연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금속캔, 유리용기, 목재, 물류, 완충포장, 지기, 골판지, 포장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연구·개발·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최종 수요자인 CJ, 농심, 오리온, 대상, 동원F&B, 매일유업 등 포장재 사용업체에서 포장재 및 포장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그밖에도 학계 및 학회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대한민국 포장 분야의 곳곳에 포장기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Q.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원장도 맡고 계신데 연구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2021년 4월에 포장분야에서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련된 시험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검사기관이다.

먼저 최우선 사업으로 과대포장과 관련된 환경부령 제품포장규칙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검사를 위하여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취득하였고, 환경부의 지정검사기관이 되어 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KST 1303 포장공간비율 검사 항목에 대한 KOLAS 인증을 취득한 국내 유일한 검사기관이 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포장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포장시험 및 검사항목으로 폭을 넓히고, 친환경포장 컨설팅 및 포장관련 시험 및 검사의 큰 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사)한국포장기술사회의 최근 동향 및 역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쓰레기 대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제로 포장재 사용이 늘었고, 그만큼 포장재에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기술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변경, 포장재 제조기술 및 포장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두께 및 중량 등의 포장재 사용량의 감량화, 플라스틱의 단일재질화, 또 넘쳐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 포장재를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따른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제품의 최종 포장 개발단계에서도 저희 포장기술사들은 친환경 포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 김충일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신임 회장은 변화무쌍한 포장산업의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장기술사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Q. 마지막으로 임기 내 계획 및 목표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현재 포장기술사회에 포장기술사 전문가분들이 180여 분 계신다. 이 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영광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회장으로로서 최근 들어 변화무쌍한 포장산업의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장기술사회를 더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젊은 포장기술사분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위상과 자부심이 고취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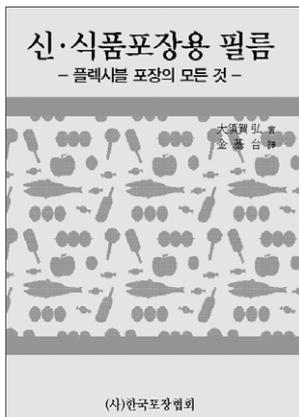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협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협회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가 협회장이나 협회조직을 위한 협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장기술사회는 각자의 회원 모두가 주인인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포장기술사 회원 간 단합 및 친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신철 기자 ksc0306@hanmail.net



서적 안내

신 · 식품포장용 필름

‘신 · 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